



“시를 포기하는 아침을 쓸 것이다.”

끝나지 않을, 끝날 수 없는, 생생한 악몽의 밤

“물과 그림자의 시인” 신영배의 7번째 시집

『젤소미나가 사는 집』

ISBN 979-11-970854-9-9 03810 / 144쪽 / 양장 / 값 10,000원 / 출간일 2022년 8월 17일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 | 담당 최하연 (편집주간) 010-4212-0752

내밀한 시 세계의 심원한 소통을 일궈온 '문학적 수도사', 신영배의 7번째 시집

2001년 등단한 이래, 『기억이동장치』 『오후 여섯 시에 나는 가장 길어진다』 『물속의 피아노』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물모자를 선물할게요』 『물안경 달밤』 등 6권의 시집을 통해 “오로지 내밀한 자신만의 시적 방언을 통해 심원한 시적 소통을 일궈온”(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신영배 시인의 신작 시집이 발간되었다. 신영배 시인은 그간 ‘물과 그림자의 시인’이라 불리며 “무정형의 존재들이 흐르고 투과하여 낮선 상상계로 향하는 과정을 시로 담아온”(오연경 문학평론가) 만큼, 이번 시집에서도 ‘여성의 삶’에 주목하며, ‘발화’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현대 시어(詩語)의 독보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신영배 시인의 이번 신작 시집은, 시인의 페르소나인 동시에 시어의 발화자이기도 한 ‘젤소미나’를 통해 다층적인, 입체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실질적인 조건, 즉 ‘유랑’과 ‘정주’의 이중 문제를 향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젤소미나의 집 없는 집을 향한, 끝나지 않는 서커스, 그리고 시집의 외출

알려진 대로 ‘젤소미나’는 1954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작품 <길(La Strada)>의 여주인공이다. 시인은 액자로 된 이 영화의 포스터와 20년 넘게 동거해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적 다중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유랑하는 차력사에 팔린 영화 속의 젤소미나에겐 집이 없지만, 시인의 집은 액자 속 젤소미나가 사는 집인 동시에, 이미 죽은 혹은 유랑하는 젤소미나로 인해 시인도 또한 집을 잃고 유랑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있지만 동시에 사라지는 ‘집’의 밖으로 나가는(외출) 것은 또 하나의 집, 바로 ‘시집’이다. 젤소미나는 빙의된 시인이며, 시인은 빙의된 젤소미나이다. ‘시의 집’은 유일하게 이 둘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

영화 포스터 패널 하나를 들고 이사를 다녔다. 20년이 넘도록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 영화 포스터 속에는 젤소미나가 산다. 나의 어릿광대 젤소미나. 얼굴에 눈물방울을 그리고 웃는 젤소미나. 눈물방울을 위한 서커스, 우는 젤소미나. 그러나 버려지고 끝내는 미쳐서 해변으로 간 젤소미나. 해변으로 가서 죽은 젤소미나. 그러나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젤소미나. 나의 집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다. _「집-13-5」 중에서

이미 죽은 주인공이, 지금 여기 살며 동시에 유랑하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가려버린 우리의 실제 현실이다. 그 이름 ‘젤소미나’는 이 땅의 모든 여성이고 여성성이며, “어제 출산해” “오늘 임신해야 하는” 젖소이며, 폭력의 대상,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삶’의 다른 이름이다. 이는 신영배 시인의 이번 시집이 “최승자·김혜순 시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국 여성 시의 계보에 발 디디고 있었으나, 곧 자기만의 시적 경지를 개척해냄으로서 하나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여성성과 그 시적 언술이 미학적으로 완벽하게 결합하는 문학사적 한 장면”임을 재확인하게 해주는 국면일 것이다.

신영배 시인이 그동안 발간한 여섯 권의 시집은 사물을 물[水]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무정형의 사물을 관찰하고 묘사하고 표현하면서 정형화된 사물도 무정형의 사물, 물사물로 만드는 것. “물걸레, 물의자, 물비행기, 물악기, 물모자 같은” “사물에 씌워진 명명을 벗기고 그 사물에 물의 옷을 입힌 것. 그것이 물사물”이다. 그는 물사물 관찰자에서 물사물 생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의 일곱 번째 시집, 『젤소미나가 사는 집』은 물사물 생활자가 살아갈 물사물 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다. 모든 것이 무정형인, 움직임만이 사물을 명명하는 나라. 불안과 무정형이 정상인 나라, 시인의 공화국. 그 나라는 모두 477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물사물 언어’가 있다. 그곳으로 가는 통로는 ‘젤소미나가 사는 집’인데, 그 집에는 젤소미나뿐만 아니라, ‘나’ ‘모빌의 여자’ ‘소녀’가 산다. 집은 해변에 있고, 해변은 단단한 땅의 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사물,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_ 최규승 시인

본문 중에서

머리말에 구멍을 두고 잠이 들었다. 귀 옆에 검은 달이 뜬 밤. 이제는 불어도 소리 나지 않는 악기를 돌아보았다. 둥근 악기 그림자가 뛰어오르는 동시에 악기 위에서 소녀가 뛰어내렸다. 두 다리가 꺾인 어릿광대, 그녀, 젤소미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돌아올 때 젤소미나는 문을 열 것이다.

(11쪽 「집·구멍」 중에서)

젤소미나가 죽은 해변이다. 시집이 젤소미나를 이야기한다. 멜로디와 망토는 바닷물에 젖어서 해초 같았다. 멜로디와 종절모는 밤바다를 끌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 멜로디와 구두는 끝없이 끝없이 걸었다.

(20쪽 「9·10·유랑·11·12」 중에서)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아침이 오면 나는 나의 젤소미나를 외면할 것 젤소미나가 사는 집이다. 밤이라는, 암흑이라는, 쇠퇴라는, 여기. 왜 이렇게 아침이 안 오지? 매일 이사하기 전날이다. 왜 이렇게 아침이 안 오지? 정말 아침이 오면 함께 사는 젤소미나를 나는 모를 것이다. 그래서 시를 포기하는 아침을 쓸 것이다.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서커스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23~24쪽 「밤·13」 중에서)

시집이 소녀상 옆에 앉는다. 치마가 되어 앉는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치마. 제목이 붙고 차례가 달린 치마. 숫자들이 행진하는 치마. 멜로디 치마. 몇몇 숫자들이 날뛰는 치마. 상처를 드러내고 비명을 지르는 치마. 시집은 구두를 신는다. 해변으로 갈 구두. 상처 난 몸 곳곳에 신는다. 골반에, 허벅지에, 발목에, 종아리에..... 구두들이 빠져처럼 가시처럼 돋은 치마. 시집이 앉아 있다.

(45~46쪽 「서커스·33·34·35」 중에서)

시집이 산책을 한다. 아스팔트와 숲이 나란히 이어진 길. 끝은 해변이다. 시집은 젤소미나의 산책을 생각한다. 젤소미나도 해변을 향해 산책을 하고 있다. 다만 벽에 걸려 있다. 벽에 걸린 채 젤소미나는 시집의 산책을 생각한다. 이 서커스도 마음에 들어. 트럼펫 소리가 커지고 시집이 멜로디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문이 열리고 파도 소리가 커지고 젤소미나가 사라진다. 젤소미나가 사라진 곳으로 시집이 들어간다. 이 서커스도 마음에 들어. 시집은 다만 벽에 걸려 있다.

(90쪽 「72·73·벽·74·75」 중에서)

저자 소개 : 신영배

1972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 2001년 계간 『포에지』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기억이동장치』 『오후 여섯 시에 나는 가장 길어진다』 『물속의 피아노』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물모자를 선물할게요』 『물안경 달밤』과 산문집 『물사물 생활자』를 펴냈다. <김광협문학상> <김현문학패> <영남일보 구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차례

제1부: 서커스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 _집 · 구멍
- _1 · 2 · 3 · 4 · 해변
- _서커스 · 5 · 6 · 7 · 8
- _9 · 10 · 유랑 · 11 · 12
- _밤 · 13
- _14 · 15 · 16 · 17 · 18 · 모빌
- _19 · 산책 · 20 · 21
- _길
- _줄 · 22 · 23 · 24 · 9
- _이사 · 25 · 26 · 27 · 5
- _28 · 29 · 30 · 돼지
- _위장 · 31 · 15 · 32
- _서커스 · 33 · 34 · 35
- _고백 · 36 · 37
- _줄
- _눈물 · 38
- _39 · 40 · 41
- _42 · 43 · 8
- _9 · 비행 · 44
- _45
- _유랑 · 나무
- _16 · 서커스 · 줄 · 줄 · 8
- _46 · 개 · 47
- _마스크 · 48 · 49
- _5 · 50
- _51 · 서커스
- _구름 · 52 · 53
- _54 · 8 · 55
- _56 · 57 · 서커스
- _58 · 59 · 해변 · 60 · 61
- _겨울 · 62 · 63 · 64 · 비행 · 65 · 66
- _67 · 68 · 69 · 서커스
- _모빌 · 70 · 71
- _72 · 73 · 벽 · 74 · 75
- _76 · 77 · 78 · 아침 · 서커스
- _집 · 13 · 5

제2부: 연속과 포말

- _물티브이 21개의 편집 의도

- _시인의 말